



현대 사회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칼뱅의 재발견

마이클 호튼 지음 | 김광남 옮김 | 아바서원

우리는 흔히 역사책에서 “칼뱅”이라는 불어식 표현으로 “그 신학자(the theologian)”를 짧게 접한다. 그가 교회 및 사회에 미친 영향력에 비해 그 서술이 지나치게 짧다고 생각한다.

칼뱅의 사상은 고대 교부들의 위대한 사상들을 통합하여 개혁교회가 만들어지는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했다. 현대 신학 역시 칼뱅과 같은 신학자들의 저작을 종합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칼뱅의 수준에 이르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하 본서)”은 칼뱅의 신학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들을 주제별로 잘 정리해 놓고 있다고 생각된다.

칼뱅의 사상이 중요한 이유

칼뱅의 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적 경건의 원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칼뱅의 사상과 생애 전반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한 그의 몸부림이 있었다. 『기독교 강요』를 쓴 목적 역시 명목상 신자(Nominal Christian)에서, 위선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본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설명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내용을 주장한다. 그것은 바로 “분리되지 않고 구별됨(distinction without separation)”이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칭의와 성화, 믿음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신자들에게 있어 믿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추상적이다. 그러나 칼뱅에게 있어 믿음은 소망과 사랑을 가져오는 도구이자 확신이었다. 믿음에 대한 성경적이고 바른 이해를 본서는 제공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삶

중세의 신학은 사랑과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은 정반대였다. 칭의를 통해 사랑과 선행을 열매로 맺게 된다.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하나님앞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한 인격속에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않고
혼합되지 않은 구별된 삶으로 산다는 것은!

있다.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는 경건의 뿌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열쇠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래야 시들지 않는 믿음과 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칼뱅은 성찬에 주목했다. 성찬은 은혜의 방편으로 하늘에서의 삶을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하다.

또한 칼빈은 시편에 깊이 매료되었다. 시편은 인간의 위선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참된 경건의 보물창고가 된다.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세상에 사는 삶

루터는 면죄부와 교황주의자에 반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글을 썼다. 종교개혁자들의 대응 방식 역시 바른 말씀사역의 회복과 성경에 기초한 예배의 개혁에 초점을 두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길 원한다. 그러나 개혁자들의 방식은 달랐다. 우리가 아니라 “말씀이 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공작이나 황제도 입힐 수 없었을 만큼 교황제도를 크게 약화시켰다. 칼뱅은 루터의 사상적 기반 위

에 급진적 혁명가가 되는 것을 지양하고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책임 위에 정치적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필자의 생각에 칼뱅 사상의 핵심이 되는 것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본서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이클 호튼 교수는 간결하며 깊이 있는 문체를 사용하여 칼뱅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오늘날과 같이 개혁신학이 주목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복음주의권의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책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호튼 자신이 복음주의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서술하되 개혁신학의 핵심 뼈대는 간직한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필자는 본서를 읽으며 늘 고민하던 “생활의 순결”에 대한 열쇠를 찾을 수 있었다. 칭의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 시편 묵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 참된 회개에 대해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르게 살고자 애쓰고 고민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호튼 교수가 재발견한 칼뱅의 신학은 위선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통찰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글 | 장운석



작은 시골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침주교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방법을 전공으로 석사과정 재학 중이다.